

[예루살렘 평화행진] 저녁집회 2 - 회복

[하박국 1:1~2, 17~19]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 2005

이태리 성 베드로 성당 입구 오른쪽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젊은 친구가 망치를 숨겨 들어가 피에타상을 깨뜨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품을 아끼는 수많은 미술애호가들이 품은 질문 하나는 “과연 이 조각품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마음속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과연 내 인생에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주전 620년 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한 침략이 시작되고 있었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운명과 같았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엎드려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민족에게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하박국은 성전에 엎드려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말 성경에 ‘부흥’이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그것을 회복으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진노 중에도 긍휼 잊지 마옵소서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계속되는 하박국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1장을 보시면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왜”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도 아닌데 왜 바빌론에 의해 짓밟혀야 하는지 기도하던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기로 동의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마다 “왜 우리 한민족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하는 현실을 감수해야 할까요?”하고 기도한다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바로 긍휼을 비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면 ‘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행동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한국민족처럼 불쌍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반유대주의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와 생존의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사는 팔레스타인인들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함께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것 잃어도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가 회복을 열망한다면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하박국 3장의 마지막 절정에서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하박국이 언급한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하나씩 떠나가는 고난의 절정에서 하박국의 입에서는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 하박국이 기뻐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외양간의 소들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축복에만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귀하지만 그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순간 그 모든 선물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이뤄지는 인생이길

회복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자신을 높은 곳에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하박국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하박국 1장의 분위기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면서 비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박국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위기를 만난 사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은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날렵한 발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언덕의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을 위협했던 골짜기를 유연하게 내려다니는 사슴의 유연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정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최고의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저 높은 곳에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의 도구로 쓰인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뒤에 오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 가쁘게 이뤄지는 현장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수 년 전 로잔 선교대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000 종족 중 교회가 없고, 성경이 없는 종족이 6,000 종족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의 결과로 이제 남은 미전도 종족이 2,500 종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류 역사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에 이어 마지막 남아있는 드라마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옴을 보는 것.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와 계신 메시아닉주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메시아닉주 분들을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동시에 쓰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유태인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힘을 합하면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과업을 완성할 것입니다. 한국 크리스천과 이스라엘의 협력 속에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스케줄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